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월 15일(금)
...(음력 12월 3일)...
Пятница
15 января 2021г.
№ 2 (1191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13일은 러시아 출판의 날입니다. 이날은 러시아에 모든 언론인들과 출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념한다. 30대의 김 이고리는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찌>매스미디어홀딩 소속 <사할린-쿠릴리>통신사의 디자이너로서 언론 분야에서 활동한 지 14여 년이 되었다.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공사에서 시작하여 <우리말방송>에서 카메라맨으로 거의 7년간 활약했다. 최근 7년은 <사할린-쿠릴리>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준 높은 전문가로 인정받고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동료들이 칭찬하고 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사할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2명 추가

현재 사할린에서 3,000명 이상의 주민이 코로나19 감염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증가는 130-140명이다. 이런 증가세는 작년 말부터 고정되어 있다. 사할린주는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화 활동에 있어 러시아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첫 접종 지역으로서 접종 영역을 확대했다.

"코로나 19의 방역 지침은 러시아 연방 보건부의 권고 방침과 위생부 의료진의 지침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사할린주는 이에 주민 보호의 추가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팬데믹 초기 엄격한 통제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장비를 갖추며 임상 경험을 연구하도록 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가 설명했다.

사할린주는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2020년 10월17일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각각의 증상에 대한 확진은 국제 질병 분류에 따라 병리학적 검사 결과로 결정된다. 이에 연방 보건부와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 러시아 통계청 및 기타 감독 기관들에 의한 가장 엄격한 통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사할린 병리해부소 엘레나 웨셀코 소장이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과 기존의 환자가 코로나 19에 걸려 사망한 사례는 비전문가의 견해로는 차이가 없어보이나, 전문가들은 다른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 사인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면 기저질환을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분류한다. 코로나19가 병리적 약화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저질환자가 코로나 19에 걸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이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다. 만약 병리학자가 코로나 19가 증상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바로 그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으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지역 보건부 의료과장 밀라 텐(정)이 설명했다.

1월 12일에 사할린 지역에서 두 명이 코로나 19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들은 흙스크 주민으로 여성과 남성 각각 1명이다. 이렇게 해서 사할린주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220명의 사할린 주민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13일 하루에 1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확진자 수는 1만7천695명, 1월13일 현재 3천117명이 치료를 받는중이라고 주 정부가 전했다.

사할린, 9,000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대량의 코로나19백신이 조만간 사할린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푸트닉5' 백신 9천 회분이 사할린으로 이송되었다. 이에 대해 주 정부가 연방 보건부와 약정했다. 이로써 다음 주부터는 주내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원하는 훨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사할린 지역에 공급될 백신은 주 전 지역에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두 번의 접종을 해야 기대하는 항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2번에 걸친 접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4호 보건소 알렉세이 예피모브 원장이 말했다.

사할린주는 연방 보건부가 대량의 백신을 보낸 국내 첫 지역들 중 하나다. 주내 전 지역에서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 모두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고스우슬루기(국가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 '진료 예약' 항목에서 대기번호를 발급하여 대기자들이 접종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백신 접종 전에 반드시 내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부작용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백신화 접종 일정이 편성되어 1월13일부터 새로이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정정합니다

본지 2021년 1월 1일 지난 호 신문이 51호로 잘못 게재되어 1 호로 정정합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 일반 음식점 영업 제한

사할린주 농업통상부는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제한을 다시 상기시켰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일반 음식점들은 밤 23시부터 아침 06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 변경 지침은 지난 해 12월20일부터 올 1월1일까지였다.

이런 지침의 일환으로 농업통상부 대표들이 매주 일반 음식점들에서 주지사령으로 정한 요구사항 준수에 따른 관찰 및 조사를 하고 있다. 요구사항 위반 시 농업통상부 직원들은 러시아 연방 행정 위반에 대한 규정 제20.6.1조 1항에 근거해 행정 위반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농업통상부가 밝혔다.

2021년, 외국인 및 비시민권자 400명 사할린주에 임시거주가능

2020년 11월 6일부터 러시아 연방 정부의 조치에 따라 외국인과 비시민권자들을 위해 2021년 400개의 사할린주 임시거주 허가 발급량이 정해졌다. 2021년1월4일부터 연방법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인과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임시거주 허가증 발급 규정은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지역들에 구성된 해당 위원회가 정부 승인 절차로 발급한다.

신청안 작성, 신청안 접수 절차, 임시거주 허가증 발급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를 고려해 해당 위원회가 1월 25일 이후 비시민권자와 외국인에게까지 러시아 내무부 이민문제 관리국 사할린 지부가 추가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사할린, 연휴기간 150명 신생아 태어나

새해 연휴기간에 사할린주 산부인과에서 남아 74명, 여아 76명이 태어났다.

주 산기 센터는 새해 연휴 10일간 60명의 신생아들을 받았다. 이곳에서 남아 29명, 여아31명이 태어났는데 이 중 6명의 아이가 2021년 1월1일에 태어났다.

주 산기 센터의 10개 분만실은 사할린 전 지역에서 여성들이 출산하러 오므로 빈 자리가 없으며 숙련된 전문의들이 다양한 병리적 현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49명의 신생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새해 연휴 기간에 흙스크의 의료진들은 7명의 신생아들을 받았으며 오후, 네웬스크, 마카로브, 쿠릴스크, 티몐스코예,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토마리, 노글리키, 우글레고르스크의 조산원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났다.

2020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 · 행사 · 사건 ·

2020년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해였다. 수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되기도 했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어르신들은 사할린을 비롯해 러시아 지역 방문을 못하고 사할린에 살고 있는 손자녀들은 방한을 하지 못했다. 2020년에 드디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1월 12일-17일 - 부산국립대 학생단 '국립대학 육성사업 - 동아시아지식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사할린 지역을 소개하고 사할린 한인 위주로 취재했다.

1월 15일-22일 - 전통적으로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 대표단은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마카로브, 시네고르스크, 흠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를 찾아 동포들을 만나 구술작업을 진행, 현지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했고 김윤덕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 고향 흠을 묘에 뿌렸다.

1월 19일 -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음력 설맞이 행사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 개최.

1월 25일 -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경자년 설맞이 행사를 가짐.

2월 8일 - 30년 전 사할린으로 첫 한국 전세기 도착.

2월 26일 -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이 3년 임기 만료로 한국으로 귀국.

신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이병일 서울 불암중학교 교감이 부임. 공식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

3월 3일 - 한국 국회의교통일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다음날, 3월 4일에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신문에 법안 게재).

3월 7일 - 사할린주한인여성회(회장 김예절) 주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후원: 주한인협회

3월 9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다. 긴급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국 국회 외교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것이었다.

3월 1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주정부 행정담당)가 사할린 한인 사회계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앞으로 사할린한인단체와 더욱 협력할 것을 표명.

3월 26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과의 투쟁을 돕기 위해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모금된 성금 3900달러 (295750루블리)는 한국적십자사 계

좌로 송금.

3월 27일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일주일 휴무'를 선포. 이후 휴무일은 5월 11일까지 연장.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많은 회사 사원 재택근무 하게 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사할린주에서 88개 방면의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

4월 초 -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해 식품세트 100개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에 전달.

4월 30일 -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국립대학교(어문역사동양학대학) 주최로 "시대 교차점에서의 한국 음악 문화"를 주제로 한국학 온라인 경시대회를 개최. 경연에 120여 명 참가.

4월 24일 - 해마다 대한적십자사의 주최로 정기적으로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사할린, 카자흐스탄,모스크바, 로스토브-나-도누, 하바롭스크, 연해주 사할린 한인 동포 단체들과 한적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지지 못했지만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사할린동포의 문제 해결에 관한 결의문을 4월24일 일본 정부와 한국정부에 예전처럼 보내기로 했다. (결의문 내용 본지 5월 1일호 게재)

4월 29일 밤 10경(한국 시간) - 15년간 한국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던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지난) 열린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본회의에

서 드디어 가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5월 8일 - 어버이 날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노인정 어르신 30여 명에게 쌀과 금일봉 전달.

5월 14일 - 이 날 부터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주내 동포 1세 어르신 530여 명을 위해 마련한 식품 선물세트 전달을 시작.

6월 10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한국 국회 전해철 의원을 비롯 한국 공식 인사들에게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감사와 청원의 글을 보냈음. (본지 6월 26일호 게재)

6월 11일-10월 11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1세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사할린 현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이 흠스크, 흠스크구역 프라우다 마을, 샤흐초르스크,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등지에서 실행.

6월 19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니콜라이 와실리에비츠 위쉬넵스키 사할린 역사학자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북방의 얼>이란 마카로브 지역 한인들에 대한 책 출판으로 소규모 출판기념회를 가짐.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

6월 27일-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청년부 회원 포자르스코예 마을 부근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 현장에서 봉사작업(정리, 나무의자 도색 작업 등)을 하였음.

6월 28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

영위원회 회의가 소집. 회의 의정에는 2020년 2/4분기 주한인협회의 사업보고, 사할린동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기타 의제가 올랐음.

7월 28-29일 - 30년 전, 1990년 7월 28-29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1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초로 사할린에서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대성황리에 진행된 공연은 한국 MBC방송사, 사할린 <레닌의 길로>신문사(현 새고려신문사)가 공동 주최. (이 사변에 대한 특집본지 7월 31일호 게재)

8월 3일-8일 - 5박6일 주한인협회 주최로 제6회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진행. 후원: 주한인협회, 재외동포재단.

8월 21일 - 제 8회 한림대학교와 사할린국립대학교 상호 방문에 따른 국제 학술회의를 열어 <유라시아 대륙 한인 디아스포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연대>라는 주제로 한림대학교에서 개최. 사할린 학자들은 온라인으로 참가.

9월 초 -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애호가 동아리가 3년 만에 다시 활동 시작. <동쪽의 마법>기획 일환으로 이번에 <K-놀이>란 주제로 활동하게 되었다.

9월 11일 - 킨(KIN)이 제작한 <사할린에 핀 해당화> 작품이 한국 KBS방송사의 '열린채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9월 12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 회의 의정에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3/4분기 사업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타 문제가 올랐음.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자원봉사자들,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가에서 불우이웃에게 옷과 신발 나눔

지난 주 '선행의 접시' 자원봉사자들이 특별한 행사를 열어 철도역 광장에서 옷과 신발을 나누어 주었다. 일부 물건들은 완전 새것이다. '삶을 선택하라'단체 회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획의 명칭은 <함께 하여 더 따뜻하다>라고 한다. 이 기획은 '강인한 정신' 비영리 자치단체와 '쾌적한 집' 노인지원 자선재단과 공동으로 성탄절에 진행되었다. 한 자원봉사자는

"불우이웃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었다. 물건 중 일부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여 이들에게 특별히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그 외 물품들은 단체 기금으로 구입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물품 나눔 기획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며 다른 도시에서도 '선행의 접시'단체처럼 진행할 예정이다.

'선행의 접시'행사는 그동안 몇 년째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철도역 부근 광장에서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 펼쳐지고 있으며 코르사코브와 아니와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으로 격리 지침이 시행되는 기간에도 이 활동은 지속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점심을 준비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이 활동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불우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 몇몇 사람이

현재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В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лонтеры раздали нуждающимся одежду и обувь

Необычную акцию провели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олонтеры «Тарелки добра». На этот раз на привокзальной площади они раздали одежду и обувь. Часть вещей была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й.

Как рассказали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Выбери жизнь», новый проект называется «Вместе теплее». Его в Рождество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о с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помощи пожилым людям «Уютный дом» и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ильные духом».

— Раздали вещи нуждающимся. Часть вещей пожертвовал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за что им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и глубок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Другая часть была приобретена на сред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й, — отметили волонтеры.

Проект по раздаче вещей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дальше. Возможно, как и «Тарелка добра», он охватит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Акцию «Тарелка добр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роводят на площади у вокз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аждый четверг в 12:30. Также ее регулярно организуют в Корсакове и Аниве. Она продолжалась даже в период изоляции, который вводили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Добровольцы сами готовят бесплатные обеды и угощают ими тех, кто попал в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Основная цель — не просто накормить людей, а поддержать их и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общаться. Интересно, что некоторые из когда-то нуждавшихся в помощи сейчас сами выступают в роли волонтеров.

러시아, 2021년 기초생활비 인상 확정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2021년 기초생활 지급에 따른 주

민 1인당 기초생활비 인상 확정에 대한 조례에 서명했다. 주민 1인당 기초생활비는 1만1천653루블리, 근로 가능 주민에게는 1만2천702루블리, 아동은 1만1천303루블리, 연금수급자는 1만22루블이다. 2021년부터 기초생활비는 예전처럼 4분기로 나누지 않고 1년에 한차례 책정된다. 이외에도 이전에는 기초생활비 규모는 소비자 바구니에 포함된 식품 가격을 토대로 설정되었다면 현재는 국민1인당 평균소득의 중간치에 따라 결정된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의 기초생활비 규모는 예전처럼 높으며 3/4분기 총결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비 금액은 1만3천151루블리부터 1만7천 780루블리까지 다양했다.

В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и величину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2021 год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одписа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величины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и по основным социаль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м группам на 2021 год.

Так, прожиточный минимум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т 11 653 рубля, для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 12 702 рубля, для детей — 11 303 рубля,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 10 022 рубля.

С 2021 года прожиточный минимум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сразу на год, а не на квартал, как это было прежде.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раньше его величина определялась на основе расчета стоимости продуктов, включенных в потребительскую корзину, то теперь зависит от медианного среднедушевого дохода по стране.

Напомни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еличина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традиционно выше. Так, по итогам третьего квартала его разме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арьировался от 13 151 до 17 780 рублей

(8면에 계속)

홈스크 학생 주 코스차, KBS의 한민족 체험수기에서 수상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KBS라디오에서 개최한 <2020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수상했다. 그중 청소년 부문의 장려상 수상자인 주 코스차는 홈스크시 중학교 학생이다.

지난 12일(호) 그는 홈스크 한글학교 이진선 강사와 함께 새고려신문사를 찾아 사할린에 도착한 KBS 한민족방송의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상패와 상금은 지난해부터 KBS 한민족방송 통신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순신 새고려신문사 기자가 전달했다.

주 코스차(15세)의 소망은 앞으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기에 할머니에게서 한국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다. 가족과 함께 다시 홈스크로 이사간 코스차는 한국어 공부를 접고 한때 일본어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3년 전에 엄마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이진선 선생이 홈스크 한글학교 학생 모집을 했다.

한국어를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는 코스차의 마음을 알아낸 이진선 선생은 코스차와 다른 아이들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KBS 한민족 방송이 개최한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에 대해서는 이진선 선생이 처음엔 <아리랑>학회 기미양 이사에게서 소식을 받았다. 새고려신문에도 이에 대한 기사가 한 번 실린 적이 있었다.

코스차가 한 번 도전해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진선 선생이 코스차에게 해보라고 권했다. 그는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 까'란 고민 끝에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글을 써보았다고 한다. 자기가 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다. 수상했다는 소식을 받고 처음엔 말도 나오지 않았고 '이거 진실인가?'라고 이진선 선생에게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장남으로 그는 8살 아래 남동생과 3살의 여동생을 잘 챙기며 살고 있고 공부도 잘 하는 편이다. 알고 보니, 최우등생이다. 학외 여러 수업으로 바쁘지만 주일에 한번 꼭 한글학교 수업을 다닌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서 2년 반 동안 한국어를 배운 결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급을 취득한 것이다. 정상수업도 아니고 한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노력과 실력을 말해주고 있다.

요즘 그는 또 하나 취미에 빠졌다. 요리다. 그저 요리가 아니라 한국음식 만들기에, 특히 한국 전통요리 (떡 등)가 궁금하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연락하고 레시피를 알아보고 있다. 어린 동생들은 떡 같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코스차가 해준 갈비찜 매력에는 꼭 빠졌다고 한다.

코스차의 성격은 급하지 않다. 뭘 해도 생각을 먼저 진지하게 하는 편이며 한국에는 3번 다녀왔다. 한 번은 영어캠프 프로그램으로,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경유하는 곳으로서이다. 그래도 자기 미래가 앞으로 한국과 관련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코스차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응원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한국에서 진 율리아 사할린 연구가의 저서 번역 출간

진 율리아 연구가가 지은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환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서적이 한국어 완역본(400쪽)으로 연말에 한국의 '선인'출판사에서 출간됐다. 러시아에서 이 저서는 2015년에 출판되었다. 한글판 서적은 한국의 가장 큰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책소개

이 책은 진 율리아 이바노브나의 저서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환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의 완역본이다. 이 책은 사할린에서 한인 사회의 형성 배경과 과정, 한인들의 송환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정책과 태도, 사할린한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디아스포라의 형성 등 사할린한인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이면서도 매우 치밀하게 밝혀낸 연구물이다. 특히 이 글은 사할린의 공식자료를 사용하여 사할린한인 사회의 역사를 분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및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사할린한인' 1세대와 1.5세대의 귀환 문제를 밝히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본인은 귀국 문제의 해결이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귀환'이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잉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부모세대가 역사적 모국으로 귀국하면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들은 실질적인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산가족 문제가 개인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형태로 종결되기도 했다. 또한 부모세대가 떠나면서 사할린한인들 내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사할린한인의 자식세대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도 또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결국 부모세대의 귀국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긴 것이다.

조선의 실정으로 우리는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당



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진 율리아 이바노브나

1979년생, 사할린동포 3세

사할린국립대학교 졸업.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사할린 한인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할린 다민족 사회, 가라후토의 역사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편의 저서와 논문 등 연구 업적이 있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 과학편집부 부장, "사할린박물관소식" 지의 책임편집자를 역임하고 있다.

역자 : 김종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 러일전쟁사, 근대시기 한러관계, 러시아의 극동정책 등과 관련하여 저서, 논문, 역서 등 약 50여 편의 연구업적이 있다. 고려대학교 역사학연구소 연구교수.

750만보(萬步)

신원섭 (KBS한민족방송 부장)



"한 사람의 열 발자국보다 열네 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영화 <말모이>(2019)의 주인공 김판수의 대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사전을 만드느라 목숨 걸고 애쓰는 조선어학회 동지들이 전국 사투리 수집을 돕기 위해 김판수가 조선팔도의 '감빵 동기'들을 데리고 등장할 때 했던 말입니다.

초등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의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말을 익히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없습니다. 무상교육의 복지혜택을 누리며 학교만 잘 다니면 국민 누구나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한 시기에 우리말을 맘껏 입에 올리지 못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김순희가 아니라 가네야마래요. 나는 김순희가 좋은데..." <말모이>에서 판수의 7살 딸 순희의 순진한 투덜거림을 들으며, 어른 관객들은 생명의 위협 없이 우리말을 쓰고 있는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우리말 한 단어 내뱉는 데에도 주변을 살펴야 했던 암흑의 시기에는 '열네 놈'들이 '한 발자국'씩 힘을 모아야, 아니 목숨을 걸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이 슬프게 새삼스럽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아닌 우리의 동시대인 현재에도 우리말과 글을 익히는 데에 별도로 특별한 노력을 들여야 하는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귀와 입과 눈으로 우리말과 글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 사는 분들입니다. 올해로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KBS 한민족방송의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는 그런 분들의 노력에 작은 응원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사할린을 포함한 CIS의 고려인분들이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내신 작품들에는 그런 열악함과 애절한 노력이 도드라져 표현돼 있습니다. 한민족상을 수상한 박승의 님의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에서 보듯, 강제징용, 속임수로 꺾어낸 인신매매, 한반도 혼란기에 버려지고 잊혀지는 서러움, '가라후토'라는 일제식 지명 등등... 사할린 동포분들 삶의 연원(淵源)에는, '말모이'를 하려고 목숨까지 던져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불운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채 낯선 곳에 뺨개쳐진 운명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을 담고 보관하고 후손에 전하는 도자기 그릇을 아끼고 닦듯, 우리말과 글을 익히고 2,3세들에게 가르쳐오면서 우리의 얼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15살의 중학생 주 코스차는 '나의 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고향에서 사는 것'이라고 서툴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코스차의 열정과 소망에 한민족방송은 청소년부문 장려상으로 화답했습니다. 또 한 분의 한민족상 수상자 공노원님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2세로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공노원님은, '여기(대한민국) 와서 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간절하게 요청하십니다. 내년 1월 1일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 공노원님의 바람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일제시대 창씨개명 관련해 방대한 자료를 찾아내 다수의 논문을 써오고 있는 정주수(鄭周洙)님은 사할린 동포와 관련해 특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1971년 재일공관 호적지도관 근무가 계기가 돼 해외동포 호적문제를 50년 넘게 깊이 고찰하고 전문서적을 다수 펴내는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주수님이 서울지방법무사회 주관 '사할린.연길 가족찾아주기 사업' 답사단원으로 1991년 6월 소련을 방문했을 때 가졌던 모스크바, 사할린, 하바롭스크 동포들과의 간담회 내용이 정주수 님 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주수, '정주수 회고문집 3집', 2020, pp.442-443), '사할린 동포 중 노인회장 박해동은 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경찰 사찰계 형사로부터 목살을 잡혀 끌려 일본으로 징용갔으며, (중략) 이들이 일본에 보상청구를 하였고 금년 8월 15일을 기해 서명운동을 벌이려하니 고국에서도 도와달라', '1세대들은 일제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분들로 영주귀국을 애절하게 희망하고 있으니 길을 열어달라', '재소동포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 교육자재와 교육자료 지원 필요' 등등.

제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 회사, 상점, 관공서에서 당연하게 우리말 우리글을 쓰고 있고, 하물며 불편한 내용의 '소환장'이든 '벌금 통지서'든 모두 한글입니다. 공기처럼 숨쉬고 물처럼 마시며 우리말, 글을 몸과 마음에 넣습니다. 동포분들의 체험수기 곳곳에 드러나듯, 해외 한민족분들, 특히 사할린 동포분들은 아주 특별한 노력을 들여야 우리말과 글을 한민족 정신으로 단단히 엮어 몸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정주수 님이 방문했던 1991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영화 <말모이>에서 '까막눈' 김판수가 '열네 놈 중 한 발자국'을 보냈듯이, KBS 한민족방송도 심혈(心血)을 더하겠습니다. <한민족체험수기 공모>는 앞으로도 전 세계 약 750만 명 한민족 동포분들의 한 발자국씩을 모아 750만 보를 함께 내딛는 열정에 소소한 구심(球心)이 되고자 합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22 декабря 2020 г.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илу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еревод данного Указ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еревод неофициальный, выполнен сотрудник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Указ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илу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01.01.202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 31272 от 22.12.2020]

Статья 1. Цель

Цель настоящего Указа – определение положений,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исполн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тья 2.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ов

Согласно п.3 Ст.3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алее – Закон)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нижеуказанные проекты:

1. Проекты поддержки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 Проекты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3.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екламные проекты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4. Проекты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5. Прочие проекты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ча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тья 3. Подача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огласно п.1 Ст.6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их семей, намеревающиеся переселиться на ПМЖ в РК и желающие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бязаны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им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в срок по 30 июня года планируемого получения поддержки, приложив документы, перечисленные ниже.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и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е за предел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через Посольство,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и другие консуль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месту регистрации или жительства.

1.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либо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жд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факт, что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15.08.1945 года

2.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ей: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либо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лицо является

супругом(ой), прямым потом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или его(ее) супруг(ом)

Статья 4. Решени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поддержки

1. Согласно Ст.3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выносит решени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ддержки для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 случае признания того, что заявитель не принесет вреда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ю порядка, общественному благосостоян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 Согласно п.1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с целью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нностей в связи с вынесением решения о поддержке может спросить мнение или запросить содействие у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органов.

Статья 5. Поруч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Согласно Ст.7 Закона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оручает обязанности по приему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о Ст.3 Указа Красному Кресту РК, действующем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тья 6. Обработ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й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лучае остр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 исполнении нижеперечислен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а также лица, получившие поручени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огласно Ст.5) может обрабатывать материалы,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здоровья согласно Ст.23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а также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или номер паспорта гражданина согласно пп.1 или 2 Ст.19 Указа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илу того же Закона.

1. Обязанност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огласно Ст.5

2. Обязанности относительно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и т.д. согласно Ст.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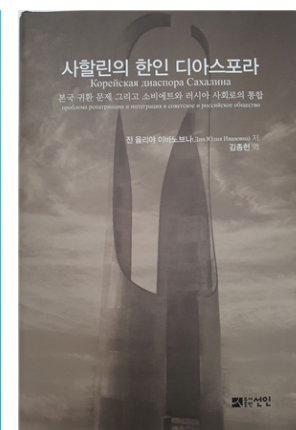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 31272 от 22.12.2020>

Настоящий Указ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01.01.2021 года.

Книг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Сонин» вышел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учной монографии сотрудни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и Дин. Книг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вышла в св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5 г., посвящена акту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основана на широком круге новых и уже известных архивных и наррати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О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аких важных вещах, как история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вербовки корейцев Японией на территорию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о (Южный Сахалин), возникновение проблемы несостоявшегос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перехода островов под юрисдикци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широ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за репатриацию, а также описывает сложный процесс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 к жизни в советском и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еревод книги осуществлен Ким Чонхоном, известным корейским русистом и историком. Ким Чонхон закончил Университет Конг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 в 2000 г. защитил кандидат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по теме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884-1904 гг.». Он заним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активно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ой, но и переводит труды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деланный им перевод книги И.И. Ростунова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выдерж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сколько переизданий и был отмечен наградами, как один из лучших по данной теме.

Научная монограф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в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ах Южной Кореи, ее уже можно купить в самом большом книжном магазине Сеула «Кёбо мунго».

Пандемия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рост экспорта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Экспорт Южной Коре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достиг рекордных объемов за все времена US\$7,57 миллиарда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за счет высокого спроса на кимчи и переработ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Рекордные объемы представляют рост на 7,7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шествующим год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аграрных вопросов.

По категориям, зарубежные отправки свежей продукции выросли на 3,4 процента до \$1,43 миллиарда. Экспорт переработ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также вырос на 8,8 процента до \$6,14 миллиард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казали, что экспорт

кимч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закуски, вырос на 37,6 процента и достиг \$144,5 миллиона.

Зарубежные отправки продукции на основе женьшеня, также выросли до \$230 миллион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счет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и здоров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Экспорт в США подскочил на 38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шествующим годом за счет растущего спроса на лапшу-рамен, кимчи и переработанные продукты из риса.

Отправки в Юго-Восточную Азию и Индию увеличились на 9,1 процента до \$1,56 миллиарда благодаря растущей тенденции питаться дома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Map of the Soul: 7' –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й альбом в США в 2020 году

Альбом группы BTS "Map of the Soul: 7" с хитами "On" и "Boy with Luv"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физическим продажам в СШ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гласно годовому отчету MRC Data (Nielsen SoundScan and Nielsen Music Products)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Billboard, за год проданы 646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Отчет включает данные о потреблении музыки в США за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по 31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тчет также показал, что «BE», еще один альбом BTS с заглавным треком «Life Goes On», занял пятое место в чар-

те самых продаваемых физических альбомов. Продано 252 тыс. экземпляров.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одаж альбомов, включая физические и цифровые, альбом BTS «Map of the Soul: 7»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после «Folklore» американской исполнительницы и автора песен Тейлора Свифта. Кроме того, англоязычный поп-диско-трек BTS «Dynamite» возглавил чарт по цифровым продажам, что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превышает «Blinding Lights» от канадского певца Weeknd.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уд РК обязал Токио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обязал Японию выплатить финансовую компенсацию в размере 100 млн вон (91.300 долларов) каждой из 12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период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решении суда, «собра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 свидетельские показания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потерпевшие пострадали от сильнейшей психической и физической боли из-за противоправных действий обвиняемых, не получив ранее должной компенсации». В августе 2013 года жертв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подали иск, в котором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их принуждали к сексуальному рабству, потребовав компенсаций. Суд провёл первое слушание по делу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окио настаивает на том, что дело должно быть прекращено на основании суверен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 правовой доктрин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государству быть защищённым от гражданских исков в иностранных судах. Потерпевши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это правило не должно применяться к преступлениям против человечности и военным преступлениям. Из 12 истцов только пятеро живы. Ещё одно решение суда по аналогичному делу ожидает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величит число рабочих мест в госсекто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ланирует в этом году увеличить наем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поскольку рынок труда пострадал от новой вспыш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Ким Ён Бом.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ймёт более 800 тыс. человек на рабочие места,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зданы за счёт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величит набор сотруднико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чтобы помочь уязвимым слоям общества и молоды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переживают безработицу», — сказал Ким Ён Бом, выступа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дробности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до конца января. Как сказал Ким Ён Бом,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в госсекторе на 10% до 1 млн 420 тыс.

54% южнокорейцев против помилования двух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помилования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Ли Мён Бака и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тюрьме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ррупции и други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 5 по 7 января агентством Gallup Korea, 54%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их помилования нынеш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39%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помилование, а 9% не определились с ответом. Помилование поддержали почти 70% респондентов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0 лет и 70% сторонников оппозиции. При этом 75% сторонников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ысказались против.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Приостановка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Великобританией продлена до 21 янва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продлить приостановку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Великобританией до 21 янва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В связи с появлением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ового штамма коронавируса реше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ластей рейсы из лондон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Хитроу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в период с 23 по 31 декабря. Позже приостановка полётов была продлена до 7 январ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7 января в РК выявлены 15 случаев нового штамма коронавируса, впервые обнаруженного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 этой связ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силивает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С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максим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температуры тела пассажиров снижено с 37,5 до 37,3 градуса. Иностранцы должны предъявить сертификат об отрицательном тесте на коронавирус, сделанном в течение 72 часов до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ыдача обычных виз гражданам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ЮАР.

«Двигаясь вперёд» — лучший независимый фильм 2020 года

Кинокартина режиссёра Юн Дан Би «Двигаясь вперёд» (남매의 여름밤 / Moving On) выбрана лучшим независимым фильмом 2020 года по верси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независимого кино. По мнению членов жюри, данный фильм является примером хорошей режиссуры. Более того, он стал утешением для всех тех, кто оказался в трудной ситуаци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Жюри также оценили вклад кинокартины в популяризацию независимого кино. Сюжет фильма «Двигаясь вперёд» повествует о брате и сестре по имени Ок Чу и Тон Чжу и их летних каникулах в доме дедушки.

(RKI)

Ким Чен Ын назвал друзей и враго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ходе докладов на проходившем в Пхеньяне 8-м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им Чен Ын обрисовал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траны чучхе, обозначив, кто является другом, а кто враг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роме того, корейский вождь пообещал создать атомные подлодки, гиперзвуковое оружие, а также более мощные ядерные боеголовки и ракеты.

"Терпел, терпел, а теперь выплеснул все, что накопилось" — примерно так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 зарубежные комментаторы содержание доклада об обще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ый Ким Чен Ын зачитал участникам 8-го съезда ТПК.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ли своего рода резюме заявлений лидера, что и позволило понят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сил КНДР.

США - главный враг, Россия и Китай - друзья

Ким назвал США "главным враго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снова политики Вашингтон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не изменитс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то находится в США у власти" и пообещал по-прежнему отвечать "силой на силу". "Мы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 и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на том, чтобы подавить являющимися нашими главными врагами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которые также являются базовым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нашего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 цитирует слова Ким Чен Ына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Одновременно лидер КНДР заявил о намерении развива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е и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а также "всем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мира, которые уважают наш суверенитет".

К Южной Корее у Кима накопилось немало претензий,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он дал понять, что не хочет лишать Сеул шанса на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мментируя 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хеньяном, Ким констатировал, что они "вернулись к периоду до подписания декларации в Пханмунжоме". Все инициативы Сеула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были названы попыткой "использовать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проблемы, чтобы создать видимос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в улучш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им отметил, что КНДР всегда готов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настоящие" инициативы Сеула и вернуться к тому периоду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весной три года назад во врем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Атомная подлодка, гиперзвуковое оружие, новые ракеты и другое оружи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им уделил ядерному вопросу. Есл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МИ 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КНДР не вспоминали о своем ракетном и ядерном арсенале, то теперь лидер Страны чучхе не стеснялся вспоминать о "силах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Как подсчит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в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в СМИ КНДР заявлениях Кима на съезде слово "ядерное/атомное" было использовано 36 раз, из которых 11 раз в сочетании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силы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и т.п.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трана чучхе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развивать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все виды своих вооруж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он дал указание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на повышении точност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 радиусом действия до 15 тысяч км,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 нанесению превентивных и ответных ударов".

Ким заявил, что КНДР уже заверши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проекту собственной ядер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а "окончательная проверка", после которой начнется этап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видов субмарин.

Далее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 что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стадии находят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управляемого оружия с разделяющимися боеголовками. Было также анонсировано создание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гиперзвуков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с новыми так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новейши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и продолжение работ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новых видов ракет подвод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твердотопливных ракет, а также миниатюризации атомных боеголовок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верхкрупных ядерных боеголовок".

Если верить словам Кима, то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направле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енных спутников для сбора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продолжится опора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По ча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КНДР Ким не сказал чего-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ого, признав лиш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и неудачи по части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на предыдущем съезде партии целей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трана чучхе должна продолжать надеяться лишь на себя и опираться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ожидали, что публично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конкретные задач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НДР на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но здесь,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открытую печать, попали лишь три цифры. Так, с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Пхеньяне будут строить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дома на 10 тысяч семей ежегодн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жильем 50 тысяч семей, в районе Комдок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на 25 тысяч семей, а производство цемента будет доведено до 8 млн. тонн ежегодно.

Зарубежная реакция на заявл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Резюме докладов Ким Чен Ына на 8-м съезде партии встретило большой отклик в соседних странах. СМИ Запада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обратили на то, что США были названы "главным врагом" и Ким дал понять, что КНДР не намерена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и иных видов новейшего оружия, продолжив его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Эксперты также теперь предрекают, что США и КНДР ждет непростой период отношений, когда возможно новое обострение, так как нов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будет пытаться оказ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Пхеньян.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пециалисты не исключают появления новых форматов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включая канал "двух женщин". В США и КНДР вторыми по влиятельности скоро станут или уже явля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это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Ё Чжон, чьи позиции и влияние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стремительно выросли, а в США это Камала Харрис, которая через 10 дней официально займет пост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Некоторые также предрекают возобновление работы четырехстороннего формата переговоров с участием США, Кита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ментаторы также обратил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лова о новых видах вооружений, конкретно разобрав то, чего стоит теперь ждать от северного соседа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Особ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Сеуле вызвали заявления о работах по созданию атом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в КНДР, которую Южная Корея пока сама не может создать. По мнению некотор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через 3-4 года создаст атомную подлодку (АПЛ), которая будет иметь водоизмещение пять-шесть тысяч тонн и вооружена 12 ядерны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подвод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явление АПЛ, как полагают в Сеуле,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ть военный баланс сил в регионе, дав возможность Пхеньяну наносить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удары в любой момент, задействуя АПЛ, которые сложно отследить.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мментируя слова Кима о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заявили, что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не изменил своей позиции и "по-прежнему готов делать шаги по реализации ранее подписанных межкорейск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очти 1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учили медпомощь во время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торжества обошлись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без серьезных травм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иротехники. Оказ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е прекращалось ни на один день в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 9 969 зафиксировано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смотра 669 пациентов направлены на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Только в травмпунк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11 дней медпомощь оказали 794 жителям.

– Основные причины травматизма не меняются – экстремальные горные виды спорта и гололед. Ежедневно принимали от 10 до 20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Падения на льду также не проходили бесследно. Каждый день обращались от 50 до 130 человек, – отметил заведующий травмпункт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андр Тырышкин.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ладимир Антонюк получил травму без покорения горных вершин. Двойной перелом лодыжки случился при падении с заледеневших ступенек.

– Гуляли с внучкой. Новогод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захотели запечатлеть эти мгновения. Не удержался на ступеньках, падение привело к операции, – рассказал мужчина.

Большая нагрузка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выпала на службы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выполнено 6 843 вызова. В среднем ежедневно во все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работало более 60 медицинских бригад.

– В эти дни усилили службу скорой помощи. И все равно, бригадам приходилось брать по три-четыре адреса. Иногда звонки поступали ежеминутно, все добросовестно трудились, старались к каждому приехать,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 уточн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помощ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нтина Дмитриева.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с симптомами ОРВИ проводился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Их работ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 отдельному графику. С 11 января вс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принимают посетителей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Крупнейшая партия вакцины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тупит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На остров направили более 9 тысяч доз препарата «Спутник V». Об этом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 федеральным Минздравом. В результатив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 поставкам вакцины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же со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ле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с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гораздо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желающих привиться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артию вакцины, которая поступит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распределят между всеми районами области.

– Желающих привиться очень много. Но нужно помнить, что надежный иммунитет формируется только при двукратной вакцинации. Призываю не пропускать второй этап,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поликлиники №4 Алексей Ефимов.

Житель Южно-Курильска Арменак Урумянц планировал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в свое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Однако мужчине по 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пришлось отправиться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намеченным планам. Курильчанин прошел оба этапа вакцин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 Важно и себя сберечь, и близких. Перенес обе прививки легко, болеть совсем не хочется, всем рекомендую, – посоветовал Арменак Урумянц.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куда федер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направила столь крупную партию вакцины.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вивку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 любом из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Дл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оформить талон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в разделе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Пациенту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 выбор даты и времени прививки. Перед иммунизацией его обязательно осмотрит терапевт и проконсультирует насчет возможных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На этой неделе будут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расписание вакцинации.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вивку вакциной из новой партии желающие могут с 13 января.

Суд встал на сторону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комплекса «Аква Сити»

Судейская коллегия пятого арбитражного апелляционного суда,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ынесла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дефектов аттракционов вод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меют скрытый характер и их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выявить на этапе передачи объекта без сложной экспертизы, которая по закону не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й. Это связано с устройством водноспортивного объекта.

– Учитывая, что дефекты спорного имущества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экспертами, имеющими специальные познания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их определения,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слож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ередаваемого в аренду объекта, особый характер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пелляционная коллегия не может согласиться с позици-

ей, что выявленные недостатки могли быть обнаружены путем обычного визуального осмотра, – сказано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Суд признал, что установленные аттракцио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т разработанному изготовителем проекту. При этом до 2016 год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е стандарты, применяемые к таким сооружениям, отсутствовал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факторы, влияющие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определялись и отражались только в проектной и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Также в суде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что аттракционы вод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можно эксплуатировать после устранения выявленных дефектов и недостатков.

Напомни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ква Сити» велось в 2014–2018 годах на средства бизнеса с условием дальнейшего выкупа комплекса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еред передачей объекта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проше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троительную экспертизу. Уже в дальнейше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из-за ошибок, допущенных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Аква Сити» в прежние годы, эксплуатация зоны аттракционов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может быть начата только после устранения выявленных недостатков.

Вместе с тем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спортивная часть комплекса – главный бассей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олимпийским стандартам, а также тренировочный.

Бассейны включены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реестр объектов спорта, поэтому здесь проводятся областные,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Главная чаш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уровня чемпионатов РФ и Европы.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в «Аква Сити» уже ведутся тренир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В отделении школы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бесплатно занимаются 446 пловцов, еще более 500 ребят – на коммерческой основе. Бассейны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жителей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Всего в 2020 году комплекс принял около 72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учило контрольный пакет акций «Авроры», на базе которой создает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Пакет акций, ранее принадлежавший «Аэрофлоту», был передан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Теперь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владельцем эт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го для страны перевозчика.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встреч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Михаилом Мишустиним.

– 10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учают пакет акций этой объединённой компании в обмен на консолидацию их авиационных активов. Новая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мпани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временны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самолёты,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гибкую систему управления маршрутами, – доложил Президенту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еред объединён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ей стоят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за четыре года её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должен вырасти до двух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а количество маршрутов превысить полтысячи. Это позволит постро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единую региональн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сеть. Авиакомпания задействует в своей работе 186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 Сейчас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ледующий шаг – создавать холдинг, в который войдут вс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компании во главе с «Авророй». Эта работа началась, и мы её делаем вместе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анспорта РФ,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о, что тарифы будут субсидировать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ать билеты по умеренным ценам. А это значит, медицински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луги, туризм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танут доступнее.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скольку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Ему нужна авиационная поддержка.

Напомним,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озда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Цель – повыс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ское молодеж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могло четыремстам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в получении ипотеки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ектара

Такого результата организации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за 3 месяца провед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пециалисты оказали островитянам содействие в оформлении разли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ответили на юрид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рассказали о льгот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семей. Итоги этой работы члены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вел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 стенах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очень благородным делом. Зачастую люди погружены в работу и семейный быт, поэтому у них нет времени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изучение вопросов, касающихся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движимости. А их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бесчисленное множество. Считаю, что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принять особ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мочь людям в получе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ать сообща, чтобы достигнуть хороших

показателей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Подпругина, курирующая в молодеж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аправление «Жилье молодым»,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о подано более 1640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800 из них одобрено.

– Также мы развернули активную консульта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решению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в медий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ыпустили тематический ролик на канале «ОТВ-Сахалин», размест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а радио, сняли обучающие видео для Ютуба по оформлен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ектара. Ведем консультации в Инстаграме и Телеграме.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зволяют дистанцион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жителями все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Наталья Подпругина.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хотели бы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сайт, чтобы выполнять эту работу более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органа – привлечение люд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Сестры милосердия». Обучающий курс помогает островитянам получить навыки по уходу за маломобильными больными,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За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амках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получили 17 человек. Причем 6 из них уже трудоустроились. Например, в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и областную больницу.

Обуче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естры милосерд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 более 90 сахалинцев пройдут его в первые месяцы 2021 года.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у рассказали о работе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адресу: ул. Ленина 154б. Так, здесь открыли перв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выставку «Арт-захват», которая собрала работы более 50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учреждение обзавелось первыми резидентами. Ими стали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звукорежиссеры, блогеры, художники, фотографы и ремесленники. В полную силу арт-резиденция работает в мае 2021 года –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будут обустроены все этажи здания. Здесь появятся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студии, магазин и каф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стали актив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ор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ись поездки на снегоходах, подледная рыбалка, катание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походы на снегоступах и другие зимние экскурсии.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 стал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30 декабря по 10 января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посетили около 2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из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приходят н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емьями, проводят на горе весь день с перерывами на обеды и чай в кафе.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освещения позволяет комплексу работать до 22:00,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практикуют вечерние ката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родаж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льга Скорлова.

Сахалинские туроператоры уже с 1 января включились в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Много желающих было опробовать новинки этого сезона – двухдневные экскурсии на озеро Невское с прозрачным льдом и зимние туры на остров Итуруп.

–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были туры с катанием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Ажиотаж в этом году вызвали экскурсии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также традиционно были популярны снегоходы, подледная рыбалка. Большой спрос остается и сегодня, – рассказала менеджер по туризму компании «Амист» Татьяна Саутченков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 всегда жаркая пора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отельеров. Заполняемость основных гостиниц в период зимних каникул стопроцентная.

– Этот год не стал исключением. Номера забронировали еще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У нас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наших клиентов. К примеру, традиционно в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 действует выгодный пакет – праздничный ужин плюс проживание.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е тарифы для любителей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 рассказала Елена Белянова, менеджер по продажам гостиницы «Санта Ризот Отель».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ходили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К примеру,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с участием Деда Мороза и Снегурочки, концерт фольклор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зимнюю выставку икебаны. С 1 января заработал бесплатный каток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снежная и ледяная горки.

–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сложно говорить про значительное увеличение турпотока с материка. Однако мы видим, что люди хотят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риезжать на Сахалин. Статистик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тали больше отдыхать внутри региона. Спасибо бизнесу за увеличение ассортимента услуг, новые интерес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и турпродукты. Когда пройдет период ограничений, все это позволит нам привлекать больше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 отметил и.о. министр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Ромашевск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

2020년 KBS 방송 한민족상 수상작

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서 70년이 흘러서야 아버지의 고향 전라도 무주 공진리에 올 수 있었다. 사할린에서 영구귀국하고 십년 만에 다시 찾은 두 번째 방문이다. 우거진 집터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잠시 눈을 감고 100년 전 공진리 마을을 상상해 본다.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개울가에서 미역을 감으며 물장난하는 모습,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밭고랑에서 일을 하시는 모습, 전남선녀가 만나 신주단지를 보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례식을 올리는 모습. 사랑스런 아내와 믿음직한 남편, 시부모님 모신 가난한 신접살림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다음 회상 장면에는 일제의 강압적 모집으로 머나먼 이국 땅 가라후토로 끌려가는 마을 사람들 모습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서 가슴이 잠시간 죄어 오고 아팠다.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고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불현듯 주마등같이 지나간다. 1940년 우리 아버지가 가라후토로 강제동원으로 끌려가기 수년 전 이미 고모는 일제의 강제모집에 속아서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철이 든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왜 우리는 조국을 놔두고 낯선 가라후토에서 태어났는지 궁금했다. 할머니가 딸과 아들이 강제모집과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자 자식들과 손녀들이 보고 싶어서 이미 양자로 간 큰아들에게 조선땅은 먹고 살기 힘들으니 형제들이 있는 가라후토로 들어가자고 해서 왔다고 한다.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고모)이 걱정이 되고 보고 싶어서 이 섬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신다. "그러면 고모는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옆에서 바느질을 하시던 할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피맺힌 이야기부터 꺼내신다. 얼굴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 이야기는 일제의 폭력으로부터 시작된다.

할아버지의 죽음과 고모의 출가

19세기 말 공진리 밀양 박씨 가문에서 나의 할아버지 박인환이 차남으로 태어났다. 공진리에 땅도 10여 마지기나 있었고 앞산이 보이고 냇가가 흐르는 한옥에서 형님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주석이 지난 어느 날 안성면 관청에서 일본 경찰과 함께 조선총독부 직원이 와서 박인환을 찾았다.

"에이, 다카하라! 고치고이!

조선총독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자기소유

의 토지를 신고하고 일본 재정관청이 그 소유권을 확인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일본이 조선에서 토지 등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땅이 니네들의 땅이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게"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손 토지예요."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샀다는 기록도 없는데...

일제는 조선 농민이 토지조사사업에 반대하여 신고를 거부한 토지는 물론,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유지를 국유화하여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만들었다. 식민통치의 기초적인 기반이었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약탈한 것이었다. 소작권마저 박탈당한 농민들은 산으로 올라가 화전농업을 하거나 전국을 떠도는 임용 노동자가 되었다. 피폐한 농촌을 떠나 남부여대하고 두만강을 건너 만주벌판으로 집단이주를 해야 했다. 신고를 하지 못한 할아버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잃고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 장남 박기수는 큰아버지에게 입양을 가게 되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가족은 살아갈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입이라도 하나 덜기 위해 장녀 박봉순은 급하게 시집을 보내게 된다. 어머니는 당시 고모가 얼마나 이뻐는지 모른다면서 말을 이으신다.

"어릴 때부터 이쁜이 소리를 듣고 자랐던 고모(봉순이)는 조선에서 시집을 가서 처음에는 행복했다. 남편은 똑똑하고 교양있는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보였단다. 그는 누에공장에서 기계수리공으로 일했다. 봉순이도 그 공장에서 18세까지 근무했는데, 아마 그 남자 편이 눈에 들었던 모양이다. 하루는 봉순이가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그 남자가 뒤따라왔다. 대문 앞에서 서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 그 총각은 봉순이의 동네에서 20리 떨어진 촌에서 살았다. 며칠 후 봉순이 뒤를 따라온 그는 용기를 내서 봉순이 집 마당에 들어가서 '아가씨! 냉수 한 그릇만 줘요!'라고 애원했지만 느

이 고모는 눈치를 채고 방에서 나가지 않고 보내 버렸다. (계속)



박승의

[우리말로 깨닫다]

몸소와 손수

몸소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손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몸소는 직접 제 몸으로라는 뜻입니다. '친히'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물론 친히에서 '친(親)'은 한자입니다. '손수'라는 말도 몸소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굳이 설명을 달리하자면 손수는 직접 제 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손이나 몸이나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손도 몸이고 몸도 손인 셈입니다.

그런데 손수는 '손'과 '수'의 복합어처럼 보입니다. 특히 손 수(手)라는 한자가 있어서 우리말 손과 한자어 수가 합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소와 손수는 사실 같은 구성입니다. 손수의 옛말은 '손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라는 한자에 끌려서 손수로 발음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원을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어휘입니다. 어려워서 공부에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보통 몸소나 손수, 친히라는 말을 들으면 나이 드신 분이나 지위가 높은 분이 생각납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직접 하는 모범적이거나 존경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나 아랫사람이 몸소, 손수, 친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몸소는 대접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그것을 물리치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하니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소 어떤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원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거나 내가 해도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점점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도 멈춰있습니다.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도 집에서도 동작이 느려집니다. 누군가의 양보나 배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몸소의 반대말은 의존이고 게으름입니다. 살면서 몸소 하는 일이 줄어든 것을 출세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관점이란 게 보통 그렇습니다. 가방도 자기가 들지 않고, 운전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물도 직접 떠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도 안 타죠. 청소는 어떻게요? 자기가 머무르는 공간이지만 청소는 해 본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직접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전문 분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소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일까요?

몸소가 더 빛을 발하는 장면은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입니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힘들어 하는 사람을 돕는 모습은 몸소나 손수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누구나 몸소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서로를 도우려 한다면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몸소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더 사랑하여야 할 겁니다. 그게 참다운 몸소의 미학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미국에 계신 선생님께 코로나 19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 글을 올렸더니 몸소가 가득한 답이 왔습니다. '작은 일도 몸소 하며 자질구레한 일들에 흠뻑흠뻑 날이 갑니다. 울기도 몸소, 그림기도 몸소, 팬창기도 몸소, 동지가 다가오며 해가 짧아지니 자주 밤길도 몸소 걸으며 다 좋은 세상이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몸소가 한가득이어서 더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시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몸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도 몸소 하는 일을 늘려야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2020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 · 행사 · 사건 ·

(2면의 계속)

9월 19일 - 흙스크시에서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4회 〈한 가정에서〉민족간 축제가 열렸다. 주최: 주한인협회, 흙스크시, 흙스크한인회.

9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주최로 이 행사는 광복절 75주년 겸, 러·한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치러졌다. 행사(공연, 한국공예 활동교실, 태권도와 씨름 대회 등)는 가가린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진행.

9월15-16일, 10월 14일-15일 - 광기동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소장은, 각각 사할린 북부 지역 한인사회를 방문하고, 1세 동포들을 위한 코로나 방역물품(마스크와 손소독제)을 전달하였다.

10월 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옆에 앞으로 조성할 〈아리랑〉소공원 착공식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인 만큼 사할린주 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사할린주 한인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0월 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앞 사할린동포 희생자 위령비와 사할린한인 이중징용 광부 피해자 추모비 앞에서 사할린동포 희생자 추모 행사를 진행. 1993년 위령비 건립부터 현재까지 해외

희생 동포 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 한국)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사할린주 한인노인회와 주 한인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서 방문하지 못한 상대방에서 이 행사를 주 노인회와 주 한인협회가 진행.

같은 행사가 오후 포자르스코예(미주호)촌 27인 한인피살자 추모비 앞에서도 진행되었다.

10월 9일 - 한글날을 맞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사할린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사할린 국립대학 강당에서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 및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 정부, 교육부가 주최하고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주관으로 진행.

10월 24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사회행사의 일환으로 〈장인들의 박람회〉한민족문화체험 축제가 펼쳐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사할린 국립대학교(어문역사동양학대학)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주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0월 31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김치축제〉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사할린 한국교육원(원장 이병일)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규모로 야외공간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관계로 초대받은 참가자 및 진행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하여 진행.

11월5일 -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간담회 내용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포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지 11월 6일호에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작성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원점 재검토 요청문 게재).

11월 내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한 논의 자료 본지 게재.

11월 13일 -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가 지난 7~10월 간 진행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SNS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

12월 23일 -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는 10개국 재외동포 11명과의 화상간담회를 가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생계가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해 취약 동포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 한인의 숙원 사항(내용 본지 12월 25일호 게재)을 피력했다.

(본사 편집부)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김치 –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한국음식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전통 숙성 김치를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농림산업부가 전 세계 16 개 도시 주민들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응답자의 33.6%가 가장 자주 먹는 한국 음식으로 김치를 꼽았고, 갖가지 야채를 곁들인 비빔밥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7.4%가 한식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이는 전 년도에 비해 2.8% 증가한 수치이다. 소불고기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었고, 비빔밥은 유럽에서, 삼겹살 구이는 동북아시아에서, 김치는 동남아시아에서, 야채, 버섯, 고기가 곁들여진 잡채는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김치 –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ое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отребители во всем мире выбр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квашенные овощи кимчи как самое любимое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опубликовав результаты онлайн-опрос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ся среди жителей 16 городов мира. 33,6%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из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едят кимчи,

за которыми следует рис с овощами пибимпап. 57,4% респондентов знали 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что на 2,8%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Жареная говядина пульгоги названа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блюдом в Север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мерике, пибимпап – в Европе, жареное подкожное сало с прослойками мяса самгёпсаль –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имчи –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рахмальная лапша с овощами, грибами и мясом чалпхэ – в Океании, Южной Америке и регионе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공원 방문자 수 기록적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공원에 새해 연휴 기간 방문자 수가 기록을 깼다. 새해 연휴 첫 5일간 시 방문객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5만 명 이상이 공원을 방문했다. 공원 관리부에 따르면 올 겨울 특별한 강추위에도 방문자 수는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녁 시간에 공원 방문자가 많은 가운데 눈과 얼음으로 조각한 작품들과 새해 장식등, 많은 조명등이 새해 명절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 두드러지게 인기를 끄는 것 중에는 댄스 무대 앞 오솔길의 음악조명 터널과 겨울철 조명등으로 장식된 음악분수대이다. 새해 연휴 명절 분위기를 엿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비의 익스프레스(열차)'가 공원의 가장 아름다운 구역을 순환 운행한다.

공원 내에 2개의 스케이트장도 마련돼 있는데 하나는 코

스모스 경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 얼음 스케이트장이다.

시 공원 사장 빅토르 칼류진에 따르면 1월5일 스케이트 개장일부터 방문객의 스케이트 대여는 총10만 건이 달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홍보부가 전했다.

Городской пар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ьет рекорды посещаемости

Городской пар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побил рекорды посещаемости. За первые пять дней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парк посетили более 50 тысяч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Как отмечают в дирекции парка, это большая цифра для зимы, особенно такой морозной, как в этом году.

Много посетителей в парке и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создают множество световых консолей, новогодняя иллюминация и композиции, в том числе снежные и ледовые. Из популяр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этого сезона — свето-музыкальный тоннель на аллее перед танцплощадкой, а также музыкальный фонтан, который на зимний период оформлен иллюминацией. А всех желающих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н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ах провезут по самым красивым локациям парка на электро-мобиле "Сказочный экспресс".

Работают в парке два катка. Один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и второй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льдом. Как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парка Виктор Калюжный, на 5 января с начала работы катков посетител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прокато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100 тысяч раз,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